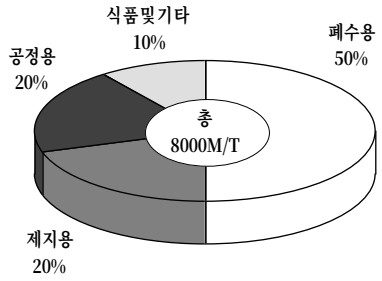
소포제 시장 악순환 "심화"

제지산업 불황 8.1%성장 그쳐 … 환경친화제품 개발 시급

96년 소포제시장은 제지경기 악화와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냉각에 따라 정체 내지 소폭 감소세가 예상, 생산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포제는 크게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로 나누어지는데 실리콘계는 무기계통으로 소량으로도 소포효과를 나타내며 다우코닝, 동양실리콘, 청산, 한국신에츠가 각각 생산하고 있다.

소포제 수요구성비(1995)



비실리콘계는 제지용으로 사용되며, 산노프코리아가 국내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10%가량이 수입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소포제 총생산량은 8000톤으로 94년 7400톤에 비해 8.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폐수처리용 4000톤 50.0%, 제지용 1600톤 20.0%, 도로·잉크용 1600톤 20.0%, 기타 윤활유·금속가공유·식품·세정제에 800톤 10% 사용되었다.

국내 소포제시장은 95년기준 실리콘계4800톤, 비실리콘계 3200톤 등 8000톤 규모로 95년하반기 이후 비실리콘계의 고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비실리콘 소포제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제지산업의 불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지회사들은 95년9월 이후 조업을 단축하고 있는데, 이는 94년이후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 막대한 시설투자를 통해 제지 생산능력을 늘렸으나 막상 중국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에 막혀 수출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의 제지 수출은 94년 직수출 24만2000톤과 홍콩을 통한 간접수출 41만7600톤을 합하여 총 65만9600톤에 달했으나, 95년8월을 기점으로 50% 감소하였으며, 96년 중반기까지는 물량증가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지산업 불황은 막대한 시설투자와 공급능력 과잉으로 96년4월 총선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과잉생산, 가격하락 등이 우려되자 제조기업들이 조업단축 의무화 등 담합을 실행함에 따라 비실리콘계 소포제 시장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백상지와 코팅지는 월5일, 판지는 7일동안 조업을 단축키로 약정, 제지 생산감축이라는 자구책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포제 원료인 유기지방산 등을 대기업들로부터 공급받는 과정에서 가격횡포에 시달리는데다, 소포제 수요기업들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인상분을 반영시키기 어려워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품질·저가 소포제의 난립도 소포제 시장을 움추려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포제 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업들이 적극적인 품질개선, 환경친화적인 에멀젼소포제 등 신기술개발, 단순 브렌딩에서 벗어난 합성 또는 중합 소포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3/4>